

6/4(토) 말라기 묵상 1 말라기 1: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으로서 저자는 말라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 이스라엘 땅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시작됩니다.

말라기 배경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책에 기록된 페르시아 어휘와 말라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학자들은 대체로 B.C. 432년부터 B.C. 425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예언을 한지 약 백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제 3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B.C. 4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느 2:6, "그 때에 왕후도 와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2차,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자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방 왕입니다.

B.C 516년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완성되고 본국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유다 인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지만 내면적으로 그들은 또다시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선지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패한 제사장들의 문제였고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문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등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는 에스라 선지자가 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척결하고자 했던 개혁의 핵심 과제였지만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여전히 유다 공동체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 B.C. 4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B.C. 425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라기서에 쓰여진 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부재중이던 B.C. 432년부터 425년 사이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말라기서는 마지막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말 4:5-6상,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 10:11, 1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것은 말라기서가 이스라엘 백성(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에서 들러리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곧 신랑이 등장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주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로 반문합니다(2절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의 온갖 사랑과 수고는 다 잊은 채 자신들이 죄로 인해 마땅히 혼나고 책망 당했던 것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2절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도 사실 에서 못지 않게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죄의 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같이 결국은 무너지고 흩어지며 멸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에도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레 11:44-45,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영적인 특권은 누렸지만 그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딤후 2: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딤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주변의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번성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믿으면서도 이단보다 세상에서 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들보다 들은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배운 대로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내 생각을 바꾸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전세계를 위한 기도:** 현재 동아프리카는 40년 만에 가장 건조한 기후로 최악의 기근을 겪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과 가축이 죽었고 식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식량 가격 급등과 무력 분쟁,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겹쳐 이 지역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만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전역에서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과 목초지를 찾아 실랑민이 되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굶주림에서 달리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적실하게 이루어지며, 테러와 폭력과 질병 등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3부 예배, EM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4. **선교 기관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들(권영봉<우크라이나>, 이창배<우크라이나>, 전만규<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